

배우 황인영-류정환 13일 웨딩마치
뮤지컬 배우 류정환(46)과 연기자 황인영(39)이 13일 결혼한다. 두 사람은 이날 양가 가족과 친지만 초대해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연기 선배로 우정을 나누다 지난해 초부터 진지한 만남을 이어왔다.



멜로디데이 “정체성 찾는데 3년...이젠 군통령”

‘키스 온 더 립스’ 보깅댄스로 섹시미 발산
자작곡까지 만들면서 자신감도 덩달아 업

여성그룹 멜로디데이(여은·예인·유민·차희)는 요즘 ‘키스 온 더 립스’로 활동하면서 “예 빠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또 “진작 이렇게 하지 그랬느냐”는 ‘잔소리’ 같은 칭찬도 그만큼 많다. 미모에 ‘몰이 올랐다’는 의미다. 가요계에서도 이들의 매혹적인 여성미, 은근한 섹시미가 화제거리가 됐다.

2014년 2월 ‘어떤 안경’으로 데뷔한 멜로디데이는 그동안 “외모와 가창력이 모두 훌륭한 걸그룹”을 표방했지만, 사실 가창력의 비중이 높은 ‘중창그룹’이었다. 데뷔 초반 팝 발라드 위주에서 차츰 ‘스피드 업’ ‘칼로’ 등 빠른 템포 음악으로 변화했지만, ‘청순 아니면 섹시’로 대별되는 걸그룹 시장에서 멜로디데이는 정체성이 모호했다.

2월 발표한 최신곡 ‘키스 온 더 립스’로는 확연히 달라졌다. 한층 예뻐진 외모와 타이트한 미니원피스, 여성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는 무대 퍼포먼스까지. 그야말로 ‘섹시 걸그룹’으로 변모했다. 데뷔 4년차에 비로소 매력이 만개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해결했다. “이번 콘셉트, 많이 마음에 든다. 우리 스스로도 ‘잘 어울린다’ 생각한다. 그동안 ‘들려주자’였다면, 이번엔 ‘보여주자’라 할 수 있다.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재미를 주고 싶어 퍼포먼스 준비를 참 많이 했다.”

이들은 ‘키스 온 더 립스’를 통해 ‘보깅 댄스’를 선보인다. 모델이 런웨이에서 포즈를 취하는 듯한 동작을 춤으로 만든 것이다.

“의상도 타이트하다보니 ‘몸매가 좋다’고 칭찬하는데, 우리가 외모로 주목받은 적 없으



그들 멜로디데이가 2014년 데뷔 이후 커다란 변화로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 이들은 “이제는 ‘들려주자’는 물론 ‘보여주자’며 ‘가창만큼 퍼포먼스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니 어색하다. 하하. 평소 운동도 하고, 이번엔 춤 연습까지 많이 하다보니 운동효과로 살이 빠졌다. 근육도 생기고.”

지난 몇 년간 10대 어린 소녀들로 이뤄진 걸그룹이 급증하면서 성숙한 여성의 매력을 뽐내내는 멜로디데이의 퍼포먼스가 신선하게 보이고 차별성을 갖게 됐다.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이는 것도 우리의 장점”이라는 멜로디데이는 새로운 팬들이 대거 유입됐다는 사실도 체감하고 있다.

“이전까지 대부분 팬들은 아는 얼굴이었지

만, 이번엔 처음 만나는 팬들이 부쩍 많아졌다. 인터넷에 팬들이 만든 ‘자캠’, ‘음짤’도 많이 나오고, 검색어 순위에도 자주 오른다. 새벽부터 팬들이 방송현장에 찾아오고, 갈수록 팬들의 합성 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경험이다. 좋은 자곡이다. 앞으로 더 보여주고 싶다.”

멜로디데이는 한창 신곡 활동 중이지만 이미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 ‘자신감’이다. 새 정체성에 대한 만족감, 외모와 퍼포먼스에 대한 칭찬은 멜로디데이 멤버들에게 자신감을 안겨

주었다. 또 네 멤버들이 함께 만든 자작곡(흔한 멜로디)도 이번 앨범에 수록하면서 음악적 성취도도 높다.

멜로디데이는 이런 자신감과 만족감 속에 ‘소박한’ 꿈을 키우고 있다. 군부대를 ‘호령’하는 ‘군통령’이다.

“‘군통령’은 그만큼 뜨겁게 주목받고 있다. 걸그룹 유행의 척도이다. 무엇보다 기가 충만하다. 더욱이 나라를 위해 힘쓰는 분들에게 작은 위트가 되고, 이제 군부대를 ‘접수’해보고 싶다. 하하.”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송혜교·이범수 등 스타들 3·1절 의미 되새겨



스타들이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중과 소통했다. 송혜교는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도쿄 편’ 안에서 1만부를 일본 도쿄 전역에 배포했다. 이범수는 팬카페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엄복동’ 제작

사실을 알려며 “선조들의 용기와 자긍심을 잊지 말자”고 했다. 한여리는 서울시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은 특별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빅뱅 지드래곤, 설리, 고경표, 천우희 등도 SNS에 태극기 사진을 올렸다. 방송인 오상진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생가 사진과 “권력을 잡기 위한 이들이 이념의 선전 도구로 혼드는 태극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글을 남겼다.

영화 ‘눈길’ 소녀상 지킴이 위한 시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눈길’과 ‘어플로지’가 3·1절을 맞아 특별 무대를 마련했다. 이날이 개봉일인 ‘눈길’은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수요집회에 참석한 ‘소녀상 지킴이’들을 위한 특별 시사회를 열었다. 소녀상이 그려진 깃발을 ‘소녀상 지킴이’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 필리핀의 세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어플로지’도 일본 대사관 앞 평화비 설치 특별 영상을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공개했다. 1000차 수요집회 때 처음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다.

슈주 이특, 휴대전화 번호 유출 고통 호소



그들 슈퍼주니어 이특이 휴대전화 번호 유출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이특은 1일 자신의 SNS에 “새벽만큼은 전화랑 메시지는 자제 부탁드립니다”며 해외 팬들을 향해서는 “일찍 녹화 가야 하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낮에 해주세요, 제발”이라고 토로했다. 이특은 2012년에도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돼 곤욕을 치렀다. 당시 그는 “매번 있던 일인데 기본은 썩 좋지 않다”며 “어차피 금방 또 유출될 텐데, 전화번호 바꾸면 바로 연락 오는 세상인데”라고 허탈해했다.

바다, S.E.S 팬미팅서 웨딩드레스 입어

해체 후 14년 만에 재결성한 S.E.S 바다가 팬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전했다. 바다는 1일 열린 20주년 팬미팅 ‘그 약속들이 모인 자리’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이날 바다는 “팬들과 완전한 관계를 인정하는 남자가 아니면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S.E.S 바다를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났다”며 “팬들에게 허락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후 바다는 드레스 차림으로 팬들과 함께 웨딩사진을 찍고 부케를 던지는 등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바다는 23일 9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편집 | 심승수·김정조 기자

‘싱글라이더’ 흥행 부진...그래도 이병헌

500개 스크린 확보 불구 기대이하 성적
잔잔한 소재...이병헌 연기력은 불거리

흥행 기록이 실력을 평가하는 전부일 수는 없다.

배우 이병헌 주연의 영화 ‘싱글라이더’(감독 이주영·제작 퍼펙트스튜디오)가 2월 22일 개봉해 1일까지 500여개 스크린에서 약 35만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이병헌과 공효진 등 톱스타가 출연한 상업영화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초반 성적이다.



영화 ‘싱글라이더’의 이병헌

특히 이병헌으로서는 최근 주연한 ‘마스터’와 ‘내부자들’이 각각 700만, 9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한 사실에 비춰보면 아쉬움이 남을 만하다.

하지만 숫자라면 이병헌과 그 작품을 평가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불량 공세를 퍼부은 블록버스터가 아닌데다 단순히 시선을 끌 만한 자극적인 소재의 영화가 아닌 만큼 초반 관객을 끌어 모으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영화를 본 관객 사이에서는 완성도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많다. 실제로 영화를 본 관객이 점수를 매기는 CGV 에그 평점에서 ‘싱글라이더’는 1일 오후 3시 현재 90%(100%만 점)를 기록하고 있다. 성적이 더 높은 ‘23아 이덴티티’(87%)를 앞지른다.

최근 대작에 집중하면서 할리우드로도 무

대를 넓힌 이병헌에 대한 관객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싱글라이더’를 두고 2001년 그가 출연한 영화 ‘범지점프를 하다’를 떠올리는 팬들도 다수다. 증권회사 지점장으로 안정된 삶을 살던 가정이 부실채권 사건에 휘말린 뒤 가족을 찾아 후살로 떠나면서 겪는 일을 담담하게 이끄는 이병헌의 연기에 공감을 얻는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병헌 역시 ‘싱글라이더’를 “‘반지점프를 하다’와 ‘달콤한 인생’을 이을 만한 인생의 작품”으로 꼽았다. 신인감독의 영화에 과감히 참여한 점도 눈에 띈다. 제작 규모도 크지 않지만 외적인 조건에 개의치 않고 출연해 탄탄한 작품을 완성했다.

이해리 기자 gafi1024@donga.com

보이스·인생술집 왜 19금으로 바꿨나?

이전 구성과 차별화 실패...인기 흐름 끊겨

케이블채널 OCN 주말드라마 ‘보이스’와 tvN 예능프로그램 ‘인생술집’이 반동을 노리며 19세로 시청등급을 상향 조정했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는 2월25일·26일 방송한 11회와 12회를 기존의 15세에서 19세 시청관람가로 등급을 변경했다. ‘인생술집’도 2월2일 방송분부터 조정했다. 모두 시청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전 구성과 차별화하지 못해 아쉬움을 사고 있다.

‘보이스’의 갑작스런 변경은 뼈아프다. 살인 장면이 그대로 노출돼 잔인하다는 이유로 상향 조정했지만 11회는 전회(5.6%·닐스코리아)보다 1.2% 포인트 하락했다. 고등학생 이하 시청자는 시청할 수 없고, 성인 시청자는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현재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SBS 월화드라마 ‘피고인’과 함께 장르 드라마로서 한창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호주의 흐름이 끊긴 분위기다.

그렇다고 19세 등급에 맞춘 극적인 설정과 화려한 연출이 등장한 것도 아니다. 11회의 살인 장면은 화면을 뿌옇게 처리해 시청을 방해할 뿐이었으며, 재방송은 15세 등급에 맞춰 재편



OCN 주말드라마 ‘보이스’

집했다. 또 이 같은 장면은 사실 1회부터 등장해왔기에 새삼 등급을 변경할 필요는 없었다는 반응이 많다.

‘인생술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도한 음주 장면으로 인해 권고 조치를 받은 것이 등급 조정의 배경이지만, 그 활용도가 미진하다. 당초 기획의도는 신동엽, 탁재훈 등 진행자와 게스트가 술을 마시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만 19세로 변경한 뒤에도 큰 변화가 없다.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신동엽과 탁재훈의 자극적인 ‘19금’ 입담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다.

두 채널을 운영하는 CJ E&M 관계자는 “방영 중 시청등급을 변경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시청자를 위한 선택인 만큼 보완할 부분을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봉준호 ‘옥자’ 6월 개봉...“영웅물 한판 붙자”

‘원더우먼’ ‘트랜스포머’ 등 대작들과 경쟁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6월 개봉을 확정하면서 여름 극장가 성수기를 앞둔 대작들의 움직임도 빨라진다.

6월에는 여성 히어로의 시대를 여는 ‘원더우먼’을 필두로 톰 크루즈가 새롭게 시작하는 ‘미이라’, 앞선 4편이 전부 흥행에 성공한 ‘트랜스포머’ 5편 등 할리우드 빅3 블록버스터가 포진해 있다. 대단위 관객 동원이 전망되는 기대작이다. 이에 ‘옥자’의 등판으로 경쟁은 가열될 분위기다. 연출자마다 흥행은 물론 작품성으로도 인정받는 감독의 새 도전을 향한 관객의 시선이 집중된다.

최근 ‘옥자’의 48초 분량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호기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최대 관심사였던 주인공이자 거대 동물인 옥자의 모습 일부가 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옥자는 유전자 변형으로 태어난 슈퍼괴물이라는 추측을 낳을 뿐 아직 그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 ‘옥자’는 이야기가 물론 기획부터 촬영까지 배일에 가려진 제작이 진행돼 왔다. 참여하는 배우의 캐릭터와 비교적 상세한 이야기를 공개하는 한국영화 제작 방식과는 차이가 뚜렷하다.

특히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영화 ‘옥자’

넷플릭스가 제작비 전액인 5000만 달러(577억 원)를 투자한 사실로도 영화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극장 개봉에 주력하는 대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동시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옥자’를 향한 관심은 최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고조되고 있기도 하다. 작품상 수상작인 ‘문라이트’의 후광효과다. ‘문라이트’는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제작한 영화. 브래드 피트는 ‘옥자’의 공동제작자이자 총괄프로듀서다. 이미 ‘노에 12년’으로 2014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브래드 피트의 ‘선구안’에 대한 관객의 신뢰가 ‘옥자’를 향한 기대로 이어진다.

이해리 기자

책 랭킹

자료:교보문고 2월 15일~2월 21일 1위 책 정보보기

순위	제목	작가
1	공터에서	김훈
2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김용택(역음)	
3	자존감 수업	윤홍균
4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설민석
5	언어의 온도	이기주
6	도깨비, 2	김은숙
7	완벽한 공부법	고영성
8	도깨비 포토에세이	황현담픽처스
9	영어책 한 권 외워봤나?	김민식
10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